2025년 12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테슬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 한국 국채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12/9)

- PLUS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혼합

PLUS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혼합: 미국 테슬라 종목의 커버드콜 포지션과 한국 국채 포지션을 함께 조합하는 채권혼합형 ETF이다. 테슬라 주식 매수 및 테슬라 콜옵션 매도 포지션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테슬라 포트폴리오를 30% 비중으로, 한국 국고채 3년물 포트폴리오를 70%의 비중으로 구성한다.

전체 자산의 30%를 차지하는 테슬라 포트폴리오에서도 절반에 대해서만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5%는 분배금 수익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포지션이 구축되고 나머지 15% 비중은 테슬라 주가 변화에 연동되는 조합이 만들어진다. 또한 테슬라 커버드콜 포지션의 경우, 분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사가가 ATM 영역에 놓여있는 콜옵션을 활용하는 한편, 주간 단위의 위클리 커버드콜 형태로 운용한다. 참고로 지수 산출일(2019/1/7) 이후의 프리미엄 기준 평균 분배금 수익률(매일 변동, 15% 비중 가정)은 연 24% 수준이다.

전체 자산의 70% 비중에 해당하는 한국 국고채 포트폴리오는 국채 선물 3년물 근원물의 바스켓에 편입된 현물 종목들을 우선 편입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평균 듀레이션 수준과 근접한 최근 발행물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전체 포지션 중 테슬라 포트폴리오와 국고채 포트폴리오의 30%:70% 비중 조건은 일간(영업일 기준) 단위의 조정 작업이 진행된다. 하위 포트폴리오 가운데 테슬라 콜옵션의 경우 매도 대상 콜옵션 만기일의 1영업일(미국 기준) 전에 새로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다. 한국 국고채 포트폴리오는 국채 선물 근원물의 최종 거래일(3월/6월/9월/12월의 세번째 화요일)에 편출입 작업이 이루어진다.

채권혼합형 ETF의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비중까지 투자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 총보수는 0.39%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이다.

도표 1. PLUS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 혼합 ETF의 종목 개요

ETF명	PLUS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혼합
상장일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기초지수	Akros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혼합 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39%
구성종목 수	테슬라 주식 1종목, 국고채 9종목, 콜옵션 1종목
비중결정방식	▣ 콜옵션: 기초자산인 테슬라 주식 50% 명목금액에 해당하는 옵션 매도 비중을산출하여 콜옵션 매도 ▣ 채권: 종목 간 동일 비중 방식
정기변경	▣ 기초지수: 미국 주식 시장 또는 한국 주식시장이 영업일인 날짜 기준으로매일 비중 산출 (3:7) ▣ 하위지수: - 테슬라 콜옵션: 해당 지수의 매도 대상 콜옵션의 옵션만기일 1영업일전(D-1) (표준 주간 만기일은 매주 금요일)로 모든 영업일은 미국 주식시장거래일 기준으로 선정 - 채권: 국채 선물 근원물의 최종거래일 즉 3,6,9,12월의 세 번째 화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편출입

자료: KRX, 하나증권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전종훈 jonghoonjeo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